

고흥군, 청년 홀로세움 아카데미 하반기 개강



고흥군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역 맞춤형 시책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3개 과정을 운

지역 청년 위한 다양한 취·창업 교육 운영 “배운 기술 잘 활용해 소득 창출 기회되길”

영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고흥 청년 홀로세움 아카데미' 사업으로 지난 6월 '2021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취·창업)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여성 킷 전문가, 힐링 시니어강사, 놀이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자격증 취득 3개반을 개설하였다.

지난 16일 여성 킷전문가 교육을 시작으로 18일에는 힐링시니어 강사 양성, 19일에는 놀이심리 상담사 양성 교육이 지역청년 90여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강하였다.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련 분야 취·창업, 사회봉사활동,

전문기관 초청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어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취·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설된 자격증 취득반 3개 과정은 새롭게 급부상하는 인기 유망직종의 과목으로 선정하여 지역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실버브레인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힐링시니어강사 양성교육은 교육 신청에서부터 호응도가 아주 높았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남해안컵 국제요트 대회' 여수서 팽파르 오늘부터 25일까지

여수시는 21일부터 25일까지 '남해안 상생발전'과 '새로운 요트항로 개척'을 목표로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전남·경남·부안이 공동 주최하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여주시, 통영시, 대한요트협회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 미국, 러시아 등 11개국 350여 명의 선수단과 34척의 화려한 크루저요트가 참가해 '여수 가막만'을 시작으로 '경남 통영 도남항'을 거쳐 '부산 수영만'까지 레이스를 펼친다.

대회 첫날은 여수에서 선수등록과 함께 참가자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 둘째 날은 본격적인 대회 시작에 앞서 여수 가막만에서 미니요트레이스가 진행되고, 오후 5시에 웅천해변문화공원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셋째 날은 1구간(여수~통영) 레이스가, 넷째 날은 2구간(통영~부산) 레이스가 펼쳐지고, 대회 마지막 날은 부산 수영만 해운대에서 폐막식과 종합 시상식을 갖고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대회 기간 동안 유튜브 브와 SNS를 통해 해상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요트레이스를 온라인 생중계로 관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맞이해 해양레저 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안전관리를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순천만 달밤 야시장, 드디어 개장

평일 3~4백·주말 7~8백명 방문...새로운 관광 명소 탄생 기대

순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순천만 달밤 야시장이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대하게 출발했다. 최근 제27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 순천만 달밤 야시장 개장식에 많은 순천시민이 참여하여 야시장 개장을 축하하며, 야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친절한 서비스, 안전한 먹거리, 즐거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야시장 운영자 선서와 함께 야시장 운영자 임명식이 진행되었다.

야시장 운영자 대표는 "한국 최고의 야시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운영자 일동은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생대수

도에 걸맞은 깨끗한 야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야시장 개장 소감을 밝혔다. 순천만 달밤 야시장은 지난 1일부터 사전운영을 시작하여 평일 3~4백명, 주말 약 7~8백명이 방문하고 있다. 개장식 이후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주말동안 1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는 등 순천의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을 잇는 순천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오는 31일까지 7개 분야 22개소 민·관 합동 안전점검

보성군은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관내 노후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지역사회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재난대비 활동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점검 대상 시설물을 최소화했다.

이번 기간 동안 유관기관 합동점검에는 전라남도청 사회재난과, 보성군 안전건설과, 시설관리부서, 건축사, 전기전문업체, 가스안전공사, 보성소방서 등 개별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물 보·기동·지반 등 주요 구조부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전기·가스·소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애호박 생산비 절감·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연시회

애호박 고설재배 고소득 경영모델 확산에 앞장서



광양시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공모사업인 '2021년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 18일 진상면민회관과 진상면 청암리 김상순 농가의 사업장에서 박홍

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본 사업은 생산비 절감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실적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사례 확산을 위해 추진된 공모사업으로, 광양시는 지난해 8월 애호박*을 품목으로 신청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도농업기술원과 함께 개최한 연시회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사례 발표, 애호박의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에 초점을 둔 고설 양액재배 현장 연시 등이 진행됐다.

김동훈 식량작물팀장은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을 통해 애호박 농가에게 고설재배 경영모델을 선보임으로써 광양애호박 연중생산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